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최연희*, 이현승¹
¹경북대학교 간호대학

A Study Discrimination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Yeon Hee Choi*, Hyeon Seung Lee¹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A 도시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를 다니는 108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의 평균은 2.15점, 삶의 만족도는 3.93점 이었다. 또한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r=-.289, p<.001$).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beta=.312, p=.030$).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경험 조절 프로그램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A total of 108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A city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The average poin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was 2.15 and the life satisfaction was 3.93. Discrimination experience correlated negatively with the life satisfaction ($r=-.289, p<.001$). Discrimination experience ($\beta=.312, p=.030$)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i.e., discrimination experience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programs can regulate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Key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Discrimination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제결혼이주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결혼을 통해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1].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는 2010년 141,654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여성은 123,093명으로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2012년 발표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보고서를 살펴 보면 결혼이주자의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힘든 점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15.8% 밖에 없었으며 대다수의 결혼이주자가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언어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편견과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제적인 어려움과 언어문제는 2009년 실태조사 결과보다 감소한

*Corresponding Author : Yeon-Hee Choi (Kyungpook Univ.)

Tel: +82-53-420-4926 email: yeonhee@knu.ac.kr

Received September 25, 2015

Accepted February 4, 2016

Revised (1st February 1, 2016, 2nd February 3,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반면에 외로움과 편견·차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Kim(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여성에 대한 배타성과 비우호적 태도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였고[4], Yang(2006)은 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문제들을 조사하였는데 41.5%가 인종차별을 꼽았으며, 국가차별 또한 35.8%가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5].

Seaton 과 Caldwell 과 Sellers 와 Jackson(2010)의 연구에 따르면, 흑인 청소년 대상으로 차별경험이 우울,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6]. Jo(2011)는 차별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내 연구, 특히 이들이 겪는 인종 차별에 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순 실태 연구 등에 국한되어 있을 뿐,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와,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 및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재 A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며, 설문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를 허락한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에 대해 서면동의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30분으로 끝난 후 바로 회수 하였다. 총 1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1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108명을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차별경험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은 Williams[8] 등이 개발한 The Williams Major and Everyday Discrimination Questions 척도를 김보민[9]이 번안한 것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주요 상황에서 인지하는 차별경험을 측정하는 Major discrimination 부분의 9개 문항과, 일상생활에서 인지하는 차별경험의 빈도를 묻는 Everyday Discrimination 부분의 10개의 문항,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차별의 원인을 밝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차별경험을 측정하고자 Every Discrimination 부분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 개발당시[9]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93$ 이다.

2.2.2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0]이 개발한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조명환과 차경호[11]가 한국판 척도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이상성, 긍정성, 만족도, 성공정도, 수용 의 총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의 영역 당 하나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5문항으로 형성되어있다. 본 도구는 7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결과 값이 5-9 사이인 경우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이고, 10-14는 불만족, 15-19 사이는 약간 불만족, 20이면 만족과 불만족도가 평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며, 21-25 사이는 약간 만족, 26-30 사이는 만족 상태, 31-35사이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로 해석한다. 설문지 개발당시[7] 신뢰도는 Cronbach α 's = .92 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s = .95 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A광역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8곳의 센터장의 허락 하에 팀장의 도움으로 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에 대해서면동의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30분으로 끝난 후 바로 회수 하였다. 총 1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1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108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확인 후, 공인 전문 번역 기관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언어 중,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로 번역 및 역번역 하였고, 설문지를 연구 전 1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실시 후 문구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합성 및 타당도를 확인하여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또한 나머지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윤리에 따라 영남대학교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승인 번호: YUH-13-033 6-O18)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거부한사람은 연구에서 제외시켰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설문지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연구 후에는 삭제하고 비밀을 보장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9.0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대상자의 차별경험, 삶의 만족도 정도는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각각의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 공선성 검증을 실시 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나이는 25세-34세 이상이 58.3 % 로 가장 많았고, 31세-35세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32.13(± 6.77)세 이었다. 남편나이는 40-49세가 51.9 % 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46.31세(± 6.77)로 나타났다. 남편의 최종학력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 54.5%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51.9%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은 95.3%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은 200만원-299만원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199만원이 37.0%, 149만원 이하가 13.0%, 300만원 이상이 1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응답자가 52.8%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0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pm SD	
Subject	<25	7	6.5		
	25-34	63	58.3	32.13 ± 6.77	
	>35	38	35.2		
	husband	<39	18	16.7	
		40-49	56	51.9	46.31 ± 7.48
	>50	34	31.5		
Native country	Vietnam	38	35.2		
	Philippines	21	19.4		
	China	58	45.3		
Religion	No	70	64.8		
	Yes	38	35.2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rs)	<3	27	25.0		
	3-5. 11	38	35.2	68.77 ± 46.10	
	5-8. 11	22	20.4		
	>9	21	19.4		

Number of child	No	21	19.4	
	1	46	42.6	
	>2	41	38.0	
Subject	≤Middle school	44	40.7	
	High school	47	43.5	
	≥College	17	15.7	
	husband	≤Middle school	22	20.4
		High school	59	54.6
husband	≥College	27	25.0	
	Subject	No	56	51.9
Yes		52	48.1	
husband	No	4	3.7	
	Yes	104	96.3	
Family's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14	13.0	
	150~199	40	37.0	
	200~299	41	38.0	
	>300	13	12.0	
Nationality of Korea	No	51	47.2	
	Yes	57	52.8	

3.2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정도

차별경험은 전체 4점 만점에 평균 2.15점이었다. 차별경험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차별적대우가 평균 2.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놀림이 평균 2.03점, 모욕이 평균 1.98점 순이었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는 전체 7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이상성이 평균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만족도가 평균 4.03점, 긍정성이 3.97점, 성공 차별경험은 전체 4점 만점에 2.1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Score of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Scale	Category	M	SD	Min
Discrimination Experience	Total	2.15	0.93	1
	Discriminative treatment	2.52	1.04	1
	Affront	1.98	1.01	1
	Bullying	2.03	1.07	1
Life Satisfaction	Total	3.93	1.34	1
	Ideality	4.11	1.39	1
	Positiveness	3.97	1.34	1
	Satisfaction	4.03	1.37	1
	Degree of success	3.94	1.47	1
	Receptivity	3.58	1.75	1

3.3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89, p<0.01$), 즉 차별경험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3.4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에서 유의한 변수인 남편나이, 자녀 수, 남편 최종학력, 본인 직업 유무, 월 평균 총 수입, 본인 한국어 실력, 남편 부인 모국어 실력, 차별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Model I에서 설명력은 28.3%($R^2=.283$)이고,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022, p<0.01$). Model II에서 설명력은 31.2%($R^2=.312$)이고,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232, p<0.01$).

Model I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편나이, ($t=2.136, p<0.05$), 자녀수($t=3.100, p<0.01$), 본인 직업 유, 무($t=2.448, p<0.05$), 월평균 총수입 ($t=2.230, p<0.05$)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편나이($t=2.773, p<0.01$), 자녀 수($t=2.759, p<0.01$), 본인 직업 유, 무($t=2.594, p<0.05$), 차별 경험 ($t=-2.202, p<0.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 중 남편의 나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수, 월평균 총수입, 본인직업 유무, 차별경험 순 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월평균 총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본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 점수는 4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5점으로 평균 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Teletia 등이 시행한 연구[12]의 1.32점 보다 높으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9]의 1.62점보다도 높은 것이다.

Table 3. Correlations of related Discrimination Experience With Life Satisfac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Total	Discrimin-ative treatment	Affront	Bully-ing	Life Satisfa-ction- Total	Ide-ality	Positi-veness	Satisf-action	Degree of success	Rece-ptiv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Total	1									
Discriminative treatment	.868**	1								
Affront	.930**	.703**	1							
Bullying	.898**	.672**	.767**	1						
Life Satisfaction - Total	-.289**	-.387**	-.306**	-.080	1					
Ideality	-.187	-.268**	-.211*	-.019	.877**	1				
Positiveness	-.272**	-.359**	-.285**	-.084	.933**	.778**	1			
Satisfaction	-.211*	-.326**	-.251**	.019	.930**	.754**	.859**	1		
Degree of success	-.293**	-.365**	-.291**	-.132	.914**	.711**	.851**	.854**	1	
Receptivity	-.336**	-.428**	-.343**	-.131	.912**	.770**	.792**	.794**	.766**	1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of Predictors on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Category	Model I					Model II						
		B	S.E	β	t	p	B	S.E	β	t	p		
	<39	reference											
Age	Husband	40~49	.383	.353	.144	1.084	.281	.595	.359	.224	1.657	.101	
		>50	.775	.363	.271	2.136*	.035	1.042	.376	.364	2.773**	.007	
Number of child	No	1	1.034	.333	.308	3.100**	.003	.914	.331	.272	2.759**	.007	
		1	.285	.255	.106	1.117	.267	.252	.250	.094	1.007	.316	
		>2	reference										
Education	husband	≤Middle school	reference										
		High school	-.342	.311	-.128	-1.099	.275	-.281	.306	-.105	-.916	.362	
		≥College	.208	.382	.068	.545	.587	.221	.375	.072	.590	.557	
Job	No	reference											
		Yes	.567	.232	.213	2.448*	.016	.590	.227	.221	2.594*	.011	
Family's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reference											
		150~199	-.287	.375	-.104	-.767	.445	-.347	.368	-.126	-.943	.348	
		200~299	-.129	.375	-.047	-.345	.731	-.164	.368	-.060	-.446	.656	
		>300	1.121	.503	.274	2.230*	.028	.948	.499	.232	1.900	.061	
Proficiency in Korean	Poor	reference											
		Fair	1.165	.701	.144	1.661	.100	1.090	.688	.135	1.584	.117	
		Good	-.088	.267	-.032	-.329	.743	-.045	.262	-.016	-.172	.864	
Husband's Proficiency in wife's native language	Poor	reference											
		Fair	.435	.339	.110	1.282	.203	.220	.346	.055	.634	.528	
		Good	-.044	.425	-.010	-.104	.917	-.175	.421	-.038	-.416	.678	
Discrimination Experience scale							-.299	.136	-.209	-2.202*	.030		
R^2				.283					.312				
ΔR^2				.283					.029				
F(p)				4.022**(.000)					4.232**(.000)				

*p<0.05, **p<0.01

Dummy variable: Age(of husband) :<40, Child number: No, Education(of husband) :graduate of collage, job(of subject): Yes, Family's monthly income>300, Proficiency in Korean: Poor, Husband's Proficiency in wife's native language: Poor.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국민의식에 따른 외국여성에 대한 배타성과 비우호적 태도에 의한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문화간 차이 이해에 초점을 두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차별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3.93 점이었다. 이는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경상북도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의 연구에서 의 5점 만점에 3.77점 의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에 지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연령별 그리고 한국 거주 기간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은, 남편나이, 남편 최종 학력, 월 평균 총 수입, 남편 부인 모국어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편의 특성들이 부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경제적인 상황 또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2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지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동훈[14] 등의 연구에서 또한 결혼이주자 중 많은 여성들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학력수준, 월평균 총수입과, 본인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직업이 있을 때 높은 것으로 이는 윤희란[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녀수가 낮을수록, 남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희란[13]의 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나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실을 좀 더 많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도우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학교를 더욱 확대시키며 이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15] 결과와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6]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 차별경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시도 뿐 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간호학적 접근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녀수, 가정 월평균 총수입, 남편의 나이, 자신의 직업 유무, 차별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가정 월 평균 총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직업이 있을 때,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윤희란[1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수록, 모임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에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서진 등의 연구[17]에서 결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박지희[16]의 연구의 결과에서 결혼기간, 학력, 직업유무, 종교 유무, 한국어 실력, 남편의 아내 모국어 실력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에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본인 한국어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결혼이주여성 직업훈련 학원과 한국어 교실 등을 확대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결혼 이주여성의 자존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들의 차별경험과 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 시설의 확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시간에 흐름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은 전체 4점 만점에 2.15 점, 삶의 만족도는 전체 7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나타났다.
- 차별경험 척도와 삶의 만족도 척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r=-.289, p<0.01$).
-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편나이, 자녀수, 본인 직업 ($t=2.448, p<0.05$), 월평균 총 수입($t=2.230, p<0.05$) 차별경험($t=-2.202, p<0.05$)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본인 직업이 있을수록, 월평균 총수입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되며,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Kang, C. R, et al., "The Effect of Social Discrimination on Suicide Idea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y Society Vol.35, No.3*, 2012.
- [2] Statistics Korea (2011).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 on 2010. <http://www.kostat.go.kr>.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2.
- [4] Kim, H. S.,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of Multi-cultural Family ; A Corroborative Research Focusing on North Cholla Province", *Unpublished doctor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11
- [5] Yang, J. H.,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nd the Violence Experiences of Foreign Migrant Women in Korean ; focusing on Gyeongn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nam University*, 2006
- [6] Seaton, E. K., Caldwell, C. H., Sellers, R. M., & Jackson, J. S., "An Intersectional Approach for understanding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frican American and Caribbean Black youth", *Development Psychology*, 2010. DOI: <http://dx.doi.org/10.1037/a0019869>
- [7] Jo, Y. A.,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11.
- [8] Williams, D. R. et al.,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97. DOI: <http://dx.doi.org/10.1177/135910539700200305>
- [9] Kim, B. M.,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 With focus on acculturative stress, discrimination,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10] Diener, E., Emmons, et al.,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8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11] Jo, M. H et al., "Compare the Quality of Life on contries", Jipmon, 1998.
- [12] Teletia R. T. et al., "Racial Discrimination and Breast Cancer Incidence in US Black Women; The Black Women's Health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07.
- [13] Yun, H. R.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Life in Marriage-Migrant Women", *Kyungp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1.
- [14] Seol, D. H. et al.,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 2006.
- [15] Choi, H.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f the Korean-Chinese in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Life with focus on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08.
- [16] Park, J. H.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Women : Focusing o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ans University*. 2007
- [17] Won, S. J. et al., "The Effect of Personal, Cultural, and Social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6 No.2*. 2011.

최연희(Yeon Hee Cho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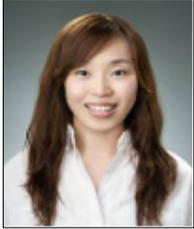
• 2006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보건교육 지역사회 기반건강증진 지역사회보건간호

이 현 승(Hyeon Seung Lee)

[정회원]



- 2010년 3월 ~ 2013년 8월 : 경북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간호